

“한 사람의 벼, 모두의 벼”

www.hanbeot.org

사람 세상

격 월 간 발 행

2026. 08/09

통권 316



병실을 벗어나 바다로 나온 말기 환자



▲ 사진 서중석

가을 크다
가을은 올 시간보다
가버린 시간이 더 크다”

.....

- 고은

한가위 밤에는 달을 봐요
그리운 사람 그려요

호스피스 환자들의 소원은?

병원에서의 죽음

말기환자 대부분은 병원이나 요양병원, 요양원에서 임종을 맞는다. 그런데 이들 병동 모습은 어떤가? 다인실 침대에다 면회자 제한(1명), 병실 밖 출입 금지, 임종실이 없어 환자는 가족이나 지인과 편안한 시간을 갖기 힘들다.



최상의 존엄사

누구나 가족이 보는 데에서 사랑과 유언을 나누며 생을 마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병원에선 이게 참으로 어렵다. 대부분 홀로 죽음을 맞이 일췌. 한벗이 제공하는 <호스피스 소원여행>은 오랜 기간 머문 병실을 벗어나 가족과 여행을 떠나 사랑을 나누고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누게 한다.

마지막 소원

지난 1년 동안 가진 14회의 소원여행에서 말기환자들의 간곡한 소원을 접했다. 이들은 하나같이 호소했다. ‘제발 병실 밖으로 내보내줘요.’

소원여행 목적지

- ☐ 마지막으로 부모님 산소에서 절 올리고 싶어요 - 3명
- ☐ 내가 살던 집과 방을 보고 싶어요 - 4명
- ☐ 확 트인 바다로 데려가 주세요 - 6명
- ☐ 제발 이 병실 밖 어디든지 데려가 주세요 - 9명

※ 이 중 8회는 병세 악화로 여행 직전 취소



소원여행을 위해
이선영 님이 100만원을,
김장식(김시내) 님이 10만원을
기부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원여행 봉사대는 기부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인 나들이봉사대 주말 카페 운영



9월 셋째 토요일부터 한빛회관에서 주말 카페를 운영합니다. 치매인과 봉사대원이 모여 함께 먹고 노래하며 산책 등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 주위에 치매인이 계시면 추천해주세요. 봉사대원이 모시러 가고 데려다 드립니다. 9월은 19일(토) 오후 1시에 갖습니다.

치매인 첫 번째 나들이



지난 7월 15일 첫 번째 나들이 다녀왔습니다.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해수욕하고 영종도 인스파이어를 관람했습니다.

나들이 참여 대원 : 류숙렬, 문홍주, 김영균(이상 치매인 3명), 김강수, 김영수, 김혜명, 성경희, 백진양, 조정복, 최월순, 한동훈, 함경숙, 함인숙(이상 10명)

치매인 나들이봉사대에 기부해주시어 고맙습니다.

특별기부해주신 분 : 성경희 20만원, 이명자 20만원, 백진양 30만원, 함인숙(113,000원)

정기기부회원 : 김강수, 김영수, 김우현, 신정훈, 백진양, 전숙희, 한동훈, 함경숙,

※ 나들이봉사대는 기부금으로 운영합니다.

계좌 : 국민 640601-04-024771 (한빛재단)/ 02-393-0661

치매인 돌봄의 대안



〈하루 종일 실내에서〉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요양병원〉

폐쇄 건물 안의 사람들

우리의 치매인 주간보호시설이나 요양원, 요양병원은 하나같이 폐쇄 건물이다. 반려견도 돈 들여 산책시키는 마당에 환자를 가두면 병이 빠르게 악화되는 건 불 보듯 뻔하다. 아픈 사람을 더 아프게 하는 짓이다. 가족도 이를 모르지 않는다.

불필요한 요양원, 요양병원 입원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엔 들어오지 말아야 할 사람이 20%나 된다는 것(어느 요양병원은 80%). 이들은 입소 자격이 안 되지만 보호자가 갖가지 구실을 붙인 경우이다. 가족은 어쩔 수 없어서라고 말한다. 정말 다른 방법이 없을까?

요양공동생활가정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입소 인원 5~9명의 〈요양공동생활가정〉이라는 시설이 있다(서울 236곳). 하지만 모두 돈벌이 목적이라 9명을 채우기에 바깥 활동은 극도로 제한된다. 그러나 수익을 바라지 않고 5명 시설을 운영하면 어떨까? 그렇다면 치매인이 제일 고통스러워하는 건물 내 감금을 벗어나 바깥 활동이 가능해진다.

3인 시설

한빛은 3인 시설을 계획하고 있다. 치매인 2명과 상근직원 1명이다. 물론 현 제도에는 없기에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치매인도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사회적 기회를 누려야 하기에 시도한다. 치매는 보통 20년 정도 진행된다. 이 동안 치매인도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내가 가고 싶은 명동 헬로키티



이용자가 원하는 곳으로

우리 센터에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용자가 직접 가고 싶은 곳을 정하고, 혼자 즐기는 ‘개별 취미활동’ 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 심재호 님

재호 님이 직접 선택한 곳은 본인이 너무나 좋아하는 귀여운 캐릭터로 가득한 명동 헬로키티 카페! 직원 2명이 동행해 재호 님만의 특별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명동에서 카페로 향하는 길부터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알록달록한 헬로키티의 모습을 구경하고, 카페 안에서는 다양한 키티 굿즈를 천천히 둘러보며 마음에 드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후에는 귀여운 헬로키티 간식과 음료를 함께 즐기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개별 취미활동이 좋은 점

우리 센터는 지금까지 여러 이용자와 직원이 단체로 일정에 맞춰 이동하고 관람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활동은 자신이 좋아하는 곳에서 오로지 혼자 마음껏 시간을 보내는 활동입니다. 이번 나들이의 장점을 살려 앞으로도 이용자 개인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존중하는 개별 취미활동을 이어가려 합니다. 자, 다음 차례가 기대됩니다.

봉사해주신 분

숙명여자대학교 : 양다연

후원품

□ 푸드뱅크: 빵 60개, 떡 2박스

우리 복지관의 「나눔 슈퍼」



우리 복지관에 나눔 슈퍼가 열렸습니다.

슈퍼에 모은 물품은 지축지구 11곳 어린이집의 ‘나눔바구니’에 모인 생필품과 식료품으로 원아와 학부모가 스스로 기증한 것입니다. 또 경기북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스타필드고양을 통해 지원받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제철 과일과 채소, 생필품도 더해졌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필요한 물품을 골라 담으며 기뻐하며 고마워했습니다.

도미솔 합창단, 올해 첫 마을 공연



우리 복지관의 자랑 도미솔 합창단이 지난 8월, 인근의 ‘고양삼송아리랑주간보호센터’에서 공연을 가졌습니다. 이번 공연은 ‘여고시절’, ‘내가 만일’, ‘상록수’, 동요 메들리까지 다양한 곡을 들려드리며 주간보호센터 어르신들에게 추억을 떠올리게 하기도, 노래에 맞춰 흥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LG트윈스 열혈 팬 주용 씨



등지 식구 박주용 씨는 프로야구 팀 LG트윈스 열혈 팬이다.

지난 8월, 주용 씨 요청으로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에도 민혁, 명규, 범준 씨와 함께 LG트윈스 경기를 보러 갔다. 다행히 이날 경기는 야외가 아닌 실내 구장인 고척스카이돔이고 더구나 저녁 7시에 시작한다.

일찍 도착해서 차도 한잔 마시고 LG 트윈스 기념품도 사며 마음의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관중석에 앉았다.

경기는 흥미진진했다. 키움과 붙었는데 초중반까지 치열했고 후반까지 엇치락뒤치락하다가 아슬아슬하게 키움이 승리했다. 주용 씨가 더없이 아쉬워했지만 평소처럼 영상이 아니라 경기장에 직접 관람했기에 나름의 즐거움을 맛 보았을 것이다.

다음날, 주용 씨는 기념품인 LG모자를 쓰고 ‘무적LG’ 로고가 크게 박힌 응원 타올을 휠체어에 두르고 출근. ‘무적LG’ 를 지키는 용사 박주용 씨 응원으로 올해 우승이다!

후원해 주신 마음, 고맙습니다. (6월17일 ~ 8월16일)

[개인]

김간란(후원자) 쌀, 김기민(후원자) 간식 생활용품 케익, 김민혁어머니(이용자) 김밥 간식,
김설화(후원자) 의류, 김재형(후원자) 방울토마토, 박기동(후원자) 간식 의류,
박주용 어머니(이용자) 식재료, 이정주(후원자) 아이스크림, 이찬용(후원자) 생활용품,
임수진(봉사자) 복숭아, 임준섭(봉사자) 아이스크림, 심현숙 심현정(후원자) 비타500,
정민영(후원자) 간식 비타500, 조우진(사회복무요원) 간식 티,
조용환(후원자) 빵, 최장미(후원자) 참기름 세제, 한윤경(후원자) 생활용품, 함지영(후원자) 과일

[단체]

당가원 짜장면, 볶음밥, 롯데카드 식재료, 생활용품 부흥세탁소 식재료 김,
사우지역아동센터 생활용품 열림교회 생활용품, 한벗등기 피자, 피노키오 생닭.

황기순 선생의 고행과 기부



연예인 황기순 선생의 거리모금이 올해로 24년째 열렸다.

이제는 국내 유명 가수들이 무보수로 출연하는 대표적인 모금행사가 되었다.

그런데 황 선생의 거리 모금은 하필 무더운 여름날을 택해 벌인다.

여기엔 폭염보다 더 뜨거운 사연이 있다.

1990년대 인기정상의 코미디언이던 황기순은 필리핀에서 도박하다 1999년 거지가 되어 돌아왔다. 가정도 찢어졌고 당연히 연예계에서 쫓겨났다. 먹고 살 길이 캄캄했다. 이때

황기순은 무엇보다 자기가 지은 죄값을 받아야 한다고 결심한다.

그리고 뜨거운 여름날 휠체어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가는 몸 공양을 벌인다.

양손은 피고름이 엉기고 얼굴을 새카맣게 쪼그라들었다.

황기순의 행진이 해를 거듭하자 주변 연예인도 그의 진정에 감복해 무료 출연으로 거리모금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올해도 40여 명의 유명 가수와 개그맨이 무료 출연. 누구나 한때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그러나 스스로 죄값을 받겠다며 고행을 자처하고 불행한 이들에게 자신의 눈물을 바치기는 쉽지 않다. 그것도 24년 동안이나 계속.

지난 8월 27일 남대문 시장에서 열린 거리 모금을 보며 부끄러웠다.

한뼘은 어려운 이들 돕는데 저렇게 혼신을 쏟는가?



황기순 선생은 2013년부터 한뼘을 통해 미얀마와 필리핀 장애인에게 휠체어 1,000여 대, 2018년부터는 장애아동을 위한 유아차 1,900대를 기증하고 있다. 지금까지 누적 기부액 약 8억5천만원, 빈곤가정에 생계비·의료비, 겨울철 연탄도 기증하고 있다.

지옥섬을 탈출한 현 바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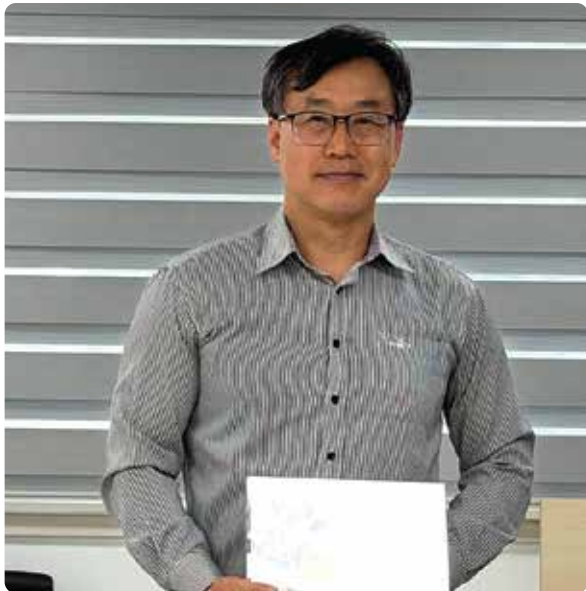


13살 때 부랑아로 단속되어 선감도 수용소로 잡혀갔던 소년
몸서리치는 학대를 못 견뎌 죽기로 해엄쳐 탈출했다. 이후
넝마주이 왕초로 살다가 목사가 되어, 요양원을 운영하고
베트남의 라이따다이안(한국인 아버지가 버린 자녀)을 돕고 있다.

지난 7월, 60년 만에 국가폭력피해자로 보상금을 받아
빠빠용 현정선 목사님이 옛 한벗회원을 불러 지난 이야기를 들려주며
보상금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참석회원 : 김삼복 김옥렬 김자희 김현숙 백진양 연규택 이금진 이명숙 이민숙 이정숙 조정복
최명숙 최진경 최진숙

최장 근무 직원 신경기 팀장 정년퇴임



지난 2008년 한벗에 입사해 주간보호센터를 거쳐 한벗동지에서 근무해온 신경기 팀장이 지난 6월
말 정년 퇴임했습니다. 한벗 직원 중 최장인 18년 재직.

지난 8월 지족복지관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공로패를 증정하며 헌신을 기렸습니다.

한·미얀마 청소년미술작품 국제교류전 개최



한국·미얀마 청소년미술작품 국제교류전



아웅산 장군 기념관 2026.11.7.-14 어린이잡지 Alnemar, 한빛재단

미얀마 최초의 「한·미얀마 청소년미술국제교류전」을 엽니다. 한빛은 2024년과 2025년에 개최했던 청소년미술대회 대신, 올해는 양국 청소년작품을 전시하는 교류전을 갖습니다.

출품작은 2026년 「대한민국청소년미술대전」 입상작 40점(한국청소년미술협회)과 미얀마 청소년 미술대회 입상작 40점 등 80점입니다.

※ 이번 미얀마 여행에 함께 할 분은 9월 말까지 연락 바랍니다. 02-393-0661



특별기부금 큰 도움 되었습니다.

휠체어 날개달기 회원 : 김경미 10만원, 김선희 10만원, 이금실 10만원, 정재호 4백만원,
최진숙 20만원, 염요숙 10만원

미얀마방정환기금 : 이민희 10만원, 조 명 10만원

재단본부 : 권진동 이사 20만원, 인치후 30만원

소록도봉사 다녀온 분들이 정기기부회원으로 등록하셨습니다!

김수자, 김정미, 김해남, 박선미, 조순희 님 고맙습니다.



이 가을, 알알이 아름답게 익으시기를-

26.6월~7월 입금내역. ()안은 개월 수

〈한벗재단〉

미국 교민 기부금 \$2,140 (7월, 8월)				
달러스 : 계 7/8월 \$1,400		킬린 : 계 7/8월 \$740		
김윤원 \$200(2)	아리 \$10(2)	강학희 \$20(2)	미영 로사 \$20(2)	장지수 \$20(2)
스텔라 \$150(2)	이안 \$10(2)	고향미 \$20(2)	백 수산나 \$30(2)	조 마리나 \$20(2)
장덕환 \$100(2)	루빈 \$10(2)	김은희 \$20(2)	유 베로니카 \$20(2)	조용순 \$20(2)
문혜숙 \$500(1)	노아 \$10(2)	김 데레사 \$20(2)	이영란 \$30(2)	최정임 \$30(2)
	제콰 \$10(2)	김 헬렌 \$20(2)	이정숙 \$20(2)	카니 박 \$20(1년치)
문혜숙 님 특별기부 고맙습니다		김정자 \$20(2)	전 이사벨라 \$20(2)	
		김혜중 \$20(2)		

- ▶ 1,000원 문숙자(2)
- ▶ 2,000원 김계순(덕양/2)
- ▶ 3,000원 강희춘(2)
- ▼ 5,000원

강병철(2) 강하늘/장은혜(2) 강하얀/장은혜(2)
공충식(2) 객안나(2) 객상삼(2) 구자균(2)
구재순(3) 김관중(2) 김대현(2) 김명문(2)
김미영(2) 김선희(2) 김시홍(2) 김시현(2)
김영희(2) 김유경(2) 김태호(2) 김향미(2)
김혜숙(목동2) 나호연(2) 류소연(2) 문혜원(2)
박범진(3) 박병건(2) 박상준(2) 박정민(2)
박지현(2) 설대호(2) 양윤모(2) 엄민애(2)
엄해영(2) 오형균(2) 우종화(2) 유경희(당산2)
이동하/한귀남(2) 이란희(2) 이성호(2)
이승희(2) 이양훈(2) 이용현(2) 이재현(2)
이정문(2) 이정자(2) 이형남(2) 이호열(2)
임정리(2) 장영익(2) 정길순/박지양(2)
정해숙(2) 조명순(2) 조병문(2) 주우익(2)
최수진(2) 최원진(2) 한송이(2) 한진숙(1)
홍영일(2) 홍경(2)

▼ 10,000원

(주)상정무역(2) (주)영화의료기(2)
강남순(2) 강석보(2) 강인호(2) 강필구(2)
구다원(2) 구영현/구인복(2) 구자석(2)
권수영(2) 권오원/주은혜(2) 권인순(2)
김경석(2) 김교일(2) 김기석(2) 김남중(2)
김동진(2) 김려원(2) 김민수(2) 김범수(2)
김수리(2) 김수현(3) 김숙자(2) 김영지(2)
김완섭(2) 김용남(효창2) 김용선(2)
김윤대(3) 김윤성(1) 김윤숙(2) 김은숙(2)
김은영(2) 김은자(2) 김재환(2) 김정미(1)
김종용/전정원(2) 김준혁(2) 김준형(2)

10 사람세상 8/9월

김진원(안산2) 김진현/이주원/이도원(2)
김철희(2) 김학철(2) 김한영(2) 김해남(1)
김향(2) 김현준(2) 김형식(2)
김혜정/이해든(2) 김화중(2) 남기명/유범려(2)
노수진(2) 노현옥(2) 도현정(2) 류희수(2)
민경양(2) 민운기(2) 민준홍(2) 박갑수(2)
박경남(2) 박병대/임옥자(2) 박선영(2)
박순화(2) 박영호(2) 박영희(2) 박윤미(2)
박종성(안양2) 박지숙(2) 박지훈/정선희(2)
박태진(2) 박혜정(2) 박희정(2) 반종대(2)
방계영(2) 방상호(2) 배경미(2) 배재수(1)
배춘숙/김신근(2) 백은채(2) 서동범(2)
서미란(2) 서상웅(2) 서영란(2) 성경희(2)
송기영(2) 송유자(2) 신동혁(2) 신성아(2)
신인아(1) 심우진(2) 심지은(1) 안병훈(2)
안성진(2) 안혜정(1) 엄해경(3) 오상만(2)
오성근(2) 오용석(2) 오윤서(1) 윤남일(2)
이건수(2) 이금주/최영하(2) 이동인(2)
이명옥(2) 이명진(2) 이명철(2) 이미지(1)
이민숙(2) 이상일(2) 이영근(2) 이영환(2)
이외선(2) 이은주(2) 이재원(2) 이재임/정윤택(2)
이주희(은평2) 이지영(미아2) 이지원(2)
이진훈(2) 인보광/박수빈/박혜빈(2) 임경민(2)
임동상(2) 임윤아(2) 장길성(2) 장치복(2)
장철성(2) 전민우(2) 전소연(2) 전현규(2)
정규성(2) 정미영/김경석(2) 정봉열(2)
정성훈(2) 정수연(2) 정수익(2) 정승은(2)
정인기(2) 정창교(2) 정창용(2) 정태영(2)
정현주(2) 조근제(2) 조기권(2) 조선행(2)
조성숙(2) 조순희(1) 조여숙/권희정(2) 조재선(1)
조정복(2) 조진영(2) 조화기(2) 지영선(1)
지형근(2) 최강석(2) 최경임(2) 최명선(2)

최순희(2) 최태도(2) 최효순(2) 최희환(2)
추정일(2) 태효원(2) 한성진(2) 한영주(2)
한혜숙(2) 함경숙(1) 함형덕(2) 허옥희(2)
홍관선(2) 홍대식(2) 황백화(2) 황연희(2)
황정일(2) 황태현(3) YOSHIDA ATSUSHI(1)
▶ 15,000원 김병석(3) 현영돈(2)
▼ 20,000원
(주)인스월드닷컴(2) 강만희(3) 강순화(2)
강영철(2) 강희정(2) 김민주(울산2)
김보경(제천2) 김승태(2) 김영복(2) 김영수(1)
김영자(1) 김인숙(2) 김준희(2) 김학준(2)
김혜은(2) 문장렬(2) 박지웅/유정영(3)
백봉현(2) 백지웅(2) 서성민(2) 석창록(3)
신광재(2) 신금옥(2) 신호숙(2) 심경애(2)
안현국/하미경(2) 양숙(2) 양홍대(2) 오정연(2)
유광주(2) 유시영(2) 이광범(2) 이남숙(2)
이상규(2) 이서중(2) 이선용(의정부2)
이성재(2) 이정림(2) 이주형(2) 이희재(1)
조윤식(2) 최재명(3) 한덕희(2) 현승혜(2)
▼ 30,000원
강재철(2) 금재호(2) 김계영(2) 김은경(1)
김홍현(2) 나호진(2) 민정범(2) 박상우(고양2)
박용길(3) 오형근(2) 윤경자(무악2) 이관희(2)
이양재(2) 이희달(2) 임용재(2) 장혜실(3)
정수화(2) 최경희/윤승균(2)
▶ 35,000원 박종성(2)
▶ 40,000원 서판임(2) 정병배(2)

▼ 50,000원

고명지(2) 김은주(2) 김익규/구자명(3)
김현수(2) 민택산업/남기백(2) 신화용(2)
알티엑스포츠(2) 윤지연(2) 이정숙(2)
이종우(2) 천성현(2) 최혜자(2)

▼ 100,000원

(주)우석엘리베이터(2) (주)휠로피아/김윤제(2)
강무진(2) 박지연(2) 안성환(2) 이승수(2)
익명(2) 조홍준(1)

▶ 150,000원 채진석(2)

▶ 200,000원 오병철(2) 임인경/최홍식(2)

▶ 900,000원 뉴라이프교회(명지춘혜,2)

〈휠체어날개달기〉

▶ 5,000원 조성우(2)

▼ 10,000원

고은미(2) 고은순(2) 권은희(2)
김계호/이명희(2) 김명석(2) 김순영(2)
김순이(2) 김명희(2) 김용환A(2) 김재애(2)
김정자(2) 김태대(2) 김창복(3) 김태윤(2)
남향숙(2) 민혜영(3) 박만수(3) 박복희(2)
박수경(2) 박신자(2) 박옥자(2) 백순정(2)
서정숙(2) 서판임(2) 손기현(3) 신승엽(2)
안지민(2) 안지우(2) 양노식(2) 여수향(2)
오원희(2) 이가영(2) 이금진(2) 이상분(2)
이영분(2) 이은영(2) 이자영(2) 이장욱(1)
이재숙(2) 이지수(2) 이지혜/유은수(2)
이진수(2) 이해령(2) 이현경(2) 이해선(2)
이희승/김향련(2) 임연하(2) 임찬예(2)
임채영(3) 임현주(2) 장궁자(2) 장은솔(2)
장은수(2) 장일순(2) 장진석(2) 장화순(2)
전도삼(2) 전옥순(2) 전해경(2) 정안나(2)
정애리(2) 정영순(2) 정우담/정원균(2)
정재갑(2) 정재희/주희(2) 정현목(2)
조문향(2) 조용환(2) 조혜숙(2) 주필봉(2)
최유경(2) 최윤지(2) 한정민(2) 한혜영(2)
홍경숙(3)

▼ 20,000원

강인숙(2) 김경숙(2) 김덕길(2) 김영옥(2)
김옥주(1) 김이태(2) 김일생(2) 김효생(2)
민병임(2) 민선숙(2) 오문영(2) 이상희(2)
이해숙(2) 장연우(2) 장혜실(3) 전승완(2)
정경호(2) 조수현(2) 조승호(2) 최광원(2)
최대우(2) 최정희(2) 최진숙(2) 한광희(2)

▼ 30,000원

(주)송지(2) 김선정(2) 김옥수(2) 박신용(2)
이태자(2) 정재호(2) 최진경(2)

▼ 50,000원

김혜령(2) 박봉희(2) 이승훈(2) 장영순(2)

▶ 100,000원 김삼복(2) 박형상(2)

▶ 120,000원 최명숙(2)

〈한빛동지〉

▶ 1,000원 진권(1)

▼ 5,000원

고현우(2) 공아영(2) 권명현(2) 기호순(2)
길현(1) 김계자(2) 김민서(2) 김용락(2)
김인경(2) 김재열(2) 마은영(2) 맹덕섭(2)
문소현(2) 박미현(2) 박창범(3) 서정민(2)
송효림(2) 심상우(2) 양인희(2) 오현숙(2)
우지영(2) 육순우(2) 윤채운(2) 이윤경(2)
이혜란(2) 임정혜(2) 정선희(2) 정정임(2)
최은미(2) 한경희(2)

▼ 10,000원

강순기(2) 강인수(2) 강훈선(2) 고유미(2)
곽영현/장형기(2) 곽우경(2) 구성모(2) 권오준(2)
권지연(2) 김가홍(2) 김규리(2) 김기래(2)
김도연(2) 김도현(2) 김면봉(2) 김명순(2)
김명희(일산2) 김미아(2) 김미미(2) 김미애(2)
김미진(2) 김봉준(2) 김봉주(2) 김상수(2)
김상옥(2) 김상한(2) 김서영(2) 김석겸(2)
김선옥(2) 김선향(1) 김선혜(2) 김성길(2)
김성윤(2) 김성현(2) 김세연(2) 김양지(1)
김연경(2) 김연숙(2) 김연주(2) 김명승(2)
김영진(2) 김우주(2) 김윤근(2) 김윤희(2)
김의수(1) 김민곤(2) 김인숙(2) 김정미(2)
김정석(2) 김정우(2) 김중국(2) 김종애(2)
김지안(2) 김지현(1) 김진수(2) 김철호(2)
김태연(2) 김현중(2) 김혜정(2) 김호영(1)
남철호(2) 노선이(1) 노신규(2) 노영진(2)
류재남(1) 박기동(1) 박리라(2) 박미숙(2)
박상정(2) 박은숙(2) 박창훈(2) 박정신(2)
박정일(2) 박준희(1) 박지원(2) 변기정(2)
서동연(2) 서민향(2) 서인숙(2) 서정민(상암)(2)
서형석(2) 서희주(2) 성다혜(2) 신승희(2)
신옥실(2) 안영미(1) 양용열(2) 양현석(2)
여운학(2) 여일규(2) 오광진(1) 오성진(2)
우기후(2) 우춘자(2) 유윤미(2) 윤정애(2)
윤태훈(2) 이경혜(2) 이규원(1) 이상수A(2)
이상수B(2) 이상우(2) 이선우(1) 이성림(1)
이성숙(2) 이소정(1) 이승언(2) 이승재(2)
이연호(2) 이영금(2) 이영순(2) 이예인(2)
이예준(2) 이은서(2) 이재호(2) 이정선(1)
이정주(1) 이종욱(2) 이준복(2) 이지안(1)
이지영(2) 이진희(2) 이태랑(2) 이태환(2)
이혜원(2) 이희권(2) 임경주(2) 임경철(2)
임진민(2) 임진희(2) 임호정(2) 장순주(2)
장승희(2) 장은정(2) 장철만(2) 전에스터(2)
정다미/김재훈(2) 정영석(2) 정영진(2)
정예진(2) 정완교(2) 정윤성(2) 정은숙(1)
정진하(2) 정한영(2) 조규연(2) 조수연(2)
조순예(2) 조인규(2) 진정민(1) 최경희(2)
최선영(2) 최순우(2) 최은미(서초2) 최은채(2)
최종금(2) 최희정(2) 추지훈(2) 하인석(2)
한재형(2) 한지행(2) 허지원(2) 황진숙(2)

▼ 20,000원

김경란(2) 김미진(2) 김성우(2) 김현정(2)
김희량(2) 문은주(1) 박승환(2) 백진선(2)
송선미(2) 우영옥(2) 원석범(2) 유선민(2)
이병수(2) 이선우/김연희(2) 이용현(2)
이정림(2) 조기택(2) 정현주(2) 하복덕(2)
한혜림(2)

▼ 30,000원

권현정/김성철/김주영(2) 김계엽(2) 김대균(2)
김문정(2) 김시연(2) 김윤영(2) 김지윤A(2)
김지윤B(2) 김현도(2) 박희수(2) 오범균(2)
윤일심(2) 이웅기(2) 임재창(2) 정은영(2)
조길용(1) 조병훈(2) 조용환(1) 채순옥(2)
채한석(2) 최갑석(2) 함정자(2) 황정현(2)
홍승혜(2)

▼ 50,000원

곽형우(2) 김간란(4) 김장옥(2) 김종호(2)
김한서(1) 박상봉(2) 박운화(2) 이호갑/윤미선(1)
정병권/김문희(2) 조성윤(2) 조항미(2) 홍영미(2)

▶ 70,000원 백승열(2)

▼ 100,000원

권영수(2) 유정자(2) 열림교회(2)
▶ 200,000원 임창섭(1) 하대주(2)
▶ 400,000원 해림금속(주)
▶ 1,141,000원 서강어린이집(1)

〈한빛동지와 함께하는 '윤광이의 하루'〉



▼ 10,000원

김규백(2) 김선식(2) 김왕수(2) 안성윤(2)
이광석(2) 이수희(2) 이종현(2) 이탄희(2)
임건태(2) 전경락(2) 정현선(2) 최봉계(2)
홍원표(2)

▼ 20,000원

강완정(2) 강진구(2) 박성용(2) 박영숙(2)
손병산(2) 이강우(2)

▶ 30,000원 김경준(2) 김기수(2)

▶ 50,000원 김혜원(2)

▶ 70,000원 최수진(2)

▶ 100,000원 오유인(2) 차성안(2)

<한빛장애인주간보호시설>

▼ 10,000원

김미영/허규민(2) 김세훈(2) 박채련(2)
양영춘(1) 이경주(2) 이경화/이기훈(2)
이수경(2) 이호식(2) 정미숙/박성수(2)
최금열(2) 최수경(2) 한정환(박종미)(2)
홍봉기(2)

▼ 15,000원

김민정(2) 20,000원 김정훈(2) 김종범(2)

▼ 20,000원

김정훈(2) 김종범(3)

▼ 30,000원

신두철(2) 안소영(2) 오선주(2) 이원재(2)

▼ 50,000원

한정환(한가현)(2)

<미안마어린이합창단>

▶ 3,000원 서지영(2)

▼ 5,000원

강신선(2) 김갑성(2) 김세현(2) 천만용(2)

▼ 10,000원

김광기(2) 김양우(2) 김희정(2) 민성숙(2)
박향림/비영리단체참빛국제협회(1) 성일경(2)
심혜숙(2) 안재은(2) 오세현(2)

▶ 20,000원 서수진(2)

▶ 30,000원 유근(2)

▶ 50,000원 김현정(1) 주혜란(2)

<고 최준수 기금>

▶ 50,000원 박봉희(1)

▶ 54,160원 조정복(2)

<호스피스 소원여행>

▼ 10,000원

박봉애(2) 박정선(2) 이수현(2) 장혜실(1)
이선영 · 김장식→1쪽

▼ 20,000원

최명숙(2) 50,000원 박현성(2) 백진양(2)
현정선(2)

<치매인 봉사대>

▶ 10,000원 한동훈(1)

▼ 30,000원

백진양(1) 성경희 · 이명자 · 함인숙→2쪽

<기부금 보내는 계좌>

한빛재단 본부

국민 763601-04-002564

휠체어날개달기

국민 763601-04-095562

미안마방정환기금

국민 640601-04-006175

미안마어린이합창단

국민 763637-04-004336

호스피스 소원여행

국민 763601-04-155077

치매인 나들이 봉사대

국민 640601-04-024771

한빛동지

국민 577301-01-127870

한빛장애인주간보호실

국민 763601-04-078400

고양시지축종합복지관

농협 351-1206-0089-03

통권 316호

폐년날 : 2026년 9월 10일

폐년이 : 한빛재단

주소 : 서울 용산구 효창원로 69길 42-3

전화 : 02)393-0661(대)

핸드폰 : 010-6747-0661

이메일 : hanbeotorg@hanmail.net

홈페이지 : www.hanbeot.org

임원/법인이사

백진양(대표) 권진동, 김윤원, 김정희, 김혜명
유시영, 채진석, 최명숙, 이승일

감사 : 강만희, 김훈

운영위원 : 임춘규(위원장), 조재선(부위원장),

강제숙, 김영균, 이승우, 장혜선, 청년한빛,
한동훈, 현승혜

부서별 연락번호

한빛동지 : 02)336-3100

주간보호실 : 02)713-5050

지축복지관 : 02)381-8938

한국휠체어기증본부 : 02)713-1005

재정보고 (26.6월~26.7월/2개월 합산)

단위 : 원

입 금			지 출		
내 역	금 액	내 역	금 액		
기부금	정기기부(재단)	12,787,000	인건비	급여, 사회보험	8,958,479
	특별기부금	750,000	시설지원	등지, 주간보호, 지축	5,685,000
	미국기부금	2,425,000	운영비	수용비, 공공요금 등	9,014,720
	등지/주간	5,185,000	업무비	직책 보조비 등	1,087,000
	날개달기	8,670,000	간행비	소식지 간행, 우송	2,004,950
	방정환 기금	1,818,000	공과금	보험료 등	1,746,200
	미안마합창단기금	486,000	사업비	휠체어날개달기	6,280,000
	최준수 기금	158,320		방정환 기금	2,779,898
	소원여행	520,000		한빛투어	720,000
	치매인 봉사대	740,000		치매노인	566,400
	소록도 봉사 기부	1,200,000		소원여행	456,700
				소록도 나들이	5,185,242
임대수입	원룸보증금,관리비 등	6,598,372		기타사업비	377,600
사업수입	휠체어 대여 등	85,000	상환금	이자	2,417,101
잡수입		908,532	반환금	반환금	26,359
차용금		4,964,425			
총 계		47,305,649	총 계		47,305,649

주 여사의 보물찾기



◀ 정윤택, 박현성 대원

폭염의 지난 7월, **최명숙·김일생** 대원이 작성한 환자 상담지를 들고 **박현성** 대원과 함께 적십자 병원으로 향했다. 이번 소원여행은 환자가 살던 집에서 꼭 찾을 것이 있다며 잠시 다녀오는 일이라 간호사도 부르지 않았다.

올해 76살의 주 여사는 2021년 백혈병 진단에 이어 지난 6월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42kg, 154cm의 작은 체구. 두 딸과 함께 연희동 집으로 향한다. 그런데 주 여사가 찾으려는 건 무엇일까? 바지런한 주 여사가 아끼고 아껴 자녀에게 남기는 무엇이겠지?

**30분도 안 걸려 유물을 찾았다. 아, 그건 비닐봉투 속의 새 양말 몇 켤레!
죽기 전에 꼭 이 걸 주고 싶었다.**

주 여사의 소원은 다름 아니라 죽기 전 그녀의 씬 없던 나날과 자갈한 소망이 손에 잡히는 방을 보고 싶었던 것이었다!

오는 길에 이전에 살던 마포 가든호텔 뒷동네를 돌았다. 초등학교만 마친 주 여사는 이곳에서 30년동안 그 작은 몸으로 연탄 30장을 지고 배달 일을 했단다. 식당에서 점심을 대접하고 병원으로 돌아왔다. 주 여사가 명량한 목소리로 말한다.

“그동안은 아프고 힘들어 죽어야지, 죽어야지 했는데 이제 다시 살고 싶어요.”

주 여사가 다시 살고 싶어진 건, 바로 하루하루 뜨겁게 산 자신의 방때문이었다!

연탄배달일로 1남 2녀를 키워낸 주 여사 모습이 눈부셨다.

- 정윤택(호스피스 소원여행 봉사대원)

임종을 기다리는 사람들

호스피스 병동의 침울한 고요.

하염없던 세상에서 아득히 떠나 살기를 멈춘 곳.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간이
주사기에서 방울방울 떨어진다. 이제 ‘나’는 없고 열과 혈압만 있다.

호스피스 병동 의사들의 말

‘병실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의 75%는 불안과 우울증, 섬망과 자살충동을 보인다. 이는 정신과 개입이나 약만으로는 안 되고 가족에게 자신의 좋은 추억을 들려주며 소원을 남기게 하는 과정이 유일한 치료 수단이다.’ 그러나 우리의 병원에선 이게 어렵다.

환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우리나라 사람의 84.5%가 병원에서 죽는다.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배가 많다. 병원에서는 의사가 생명의 주인이다. 환자는 마치 ‘사람’이 아닌 것처럼 배제된다.

- ❏ 지긋지긋한 침대에서 벗어나 죽기 전에 땅 한번 밟아보고 싶다는 분이 계셨다. 의사가 막 았다. 환자는 마지막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일주일 후 돌아가셨다.
- ❏ 중환자실에서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하자 환자가 집으로 보내달라고 했다. 하지만 의사는 요양병원으로 보냈고 환자는 다음 날 홀로 죽었다. 환자는 죽을 장소도 정할 수 없다.



75세 김 00 님의 소원은 살던 집 쇼파에 앉아 보기였다. 손주들도 왔다. 참 다행이었다.

〈호스피스 소원여행〉이 24개국으로 널리 퍼진 이유는, 환자가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네덜란드에선 소원여행이 연간 2,000건이나 이루어진다. 국내 유일의 한벗에선 1년 동안 14건에 불과했다.